

우리의 힘으로 새삼을 바꾸고 있는 기쁨이 많이 있고 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을 제지하지 않고 신념들을 다짐한 잘못을 행해지고 있는 것은 다짐이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시민사회에 일고 있다. 여남들은 우리를 살림이들이 꿈꾸고 있는 초상점을 앞뒤에 위해 '살림관리 여성행동'이라는 동의를 만들고 행동에 들어왔다.

살림이란 살림바라느것, 살림하느것, 보살핀다는 뜻이다. 원래란 국민의 살림조각을 맡아바라느 리정도로 이해한다. 차대 살림정치야 고로? 안철의 정치가 국민의 안락은 눈앞에서 쟁쟁한을 원함이며 국민의 소원을 거부하고 있어 절대바라느 국민을 배양할수 없는 등으로 생애정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애상들은 정치로 살림 불안에 위기감에 갖출려 하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 이끄러 내는일에 사명을 대려보는 앞장 서겠다는 뜻이다.

‘왜 또 애생이 싹싹이 나고로?’ 새로운 태어난 애생들은 다른 기치를 잡지
한 태도로 한에 의해서 가능한데 애생들이 빠른 지속가능성으로
애생을 변경시키지 않는 무임한 대안책으로 부당한 것이다. 그것은 애생
들이 자신들 살아온 환경의 개념과 개념이론을 통해 체득한 잘못된 기치
를 인정하고 지음까지 애생들이 그 기치와 함께 기회를 잡지 못하니
지음까지 지음까지로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인 애생이란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조류의 기치를 잡는 애생들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정치인의 몫이지만 236회기 안국동 법제대로 시행(처기)으로
간이대 회비로 정회인을 선출하는 행임도 우리에게 있다. 2008년
정회문을 기가 뒷면에다 관상한 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2008.13 시... ..

[illegible]

새로운 시대의 애방의 리듬에 맞추어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애방을 지닌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애방들이 달리 걸린다.
 새로운 애방이 열릴 것이다.